

급증하는 독거노인 못 따라가는 복지서비스

전남, 노인 3명 중 1명...일자리·의료 등 '맞춤형' 제공 시급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에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이 매년 급증해 또 다른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행정기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이렇다 할 기술이나 노동력도 갖추지 못한 빈곤층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7만4565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남성 2만8013명 여성 8만9490명 등 11만7503명으로, 전체의 31.4%에 이르고 있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곳은 37.1%(1만4818명 중 5499명)의 보성군, 37.0%(1만1115명 중 3228명)의 함평군, 36.9%(1만2342명 중 3664명)의 장흥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거나 육박한 곳이다.

5년 전인 지난 2009년 노인인구 33만8407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9만5993명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은 28.4%였다. 5년 사이 독거노인의 수와 비중이 3%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독거노인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로, 노인인구 3만4242명 가운데 독거노인

이 1만32명이었으며, 구례군은 노인인구 7919명 중 2054명만이 독거노인으로 가장 수가 적었다.

등록된 치매노인 수도 1만9439명으로, 전체 노인의 5.19%로 나타났으며, 시 단위에서는 여수가 2366명, 군 단위에서는 장흥이 1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 단위의 경우 미등록 치매노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이 늘고 있는데도 전남도내 공립노인전문병원인 광양 등 12곳에만 설립돼 있고, 병상 수는 1375병상에 불과하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맡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역시 단 2곳으로,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22개 시·군이 올해 국비와 도비 299억6720만원을 투입해 508개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벌였으나 참여 노인은 2만50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47%만이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실장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의료 및 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공동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첫 눈...주말까지 춥다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첫눈이 내린 1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산장 산책로의 나뭇가지 사이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인 6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건설

윤장현 시장 "시민 다수 의견 따라...조기 완공으로 불편 해소"
전국 첫 저심도 방식...노선 큰 틀 유지·일부 구간 조정 가능성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망설였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계획대로 건설된다. 공사기간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조기 완공을 목표로, 전국 첫 저심도 방식의 명품 도시철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시민들에게 수조원이 투입되는 2호선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다수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기 완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최고의 수준을 갖춘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이해를 하겠

음에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교통 편의와 복지를 위해선 2호선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2호선이 시 재정 투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가 회의, 시민회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TV토론회,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건설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노선변경 등 기존 사업 재조정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틀을 흔들 생각은 없지만, 공사일정을 놓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푸른길 구간 조정 등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부분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시장은 또 2호선 건설에 따른 1조원에 육박하는 시의 재정 부담 대책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긴 하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으로 보육원 아이들 냉난방시설 설치비 56억원이 올라왔는데, 고민할 수밖에

에 없게 됐다. (2호선 건설로) 시의 재정 운영 패러다임이 상당 부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산절감과 국비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2호선 건설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시민복지 향상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호선 재검토 선언 후 추진된 결정까지 5개월간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5개월은 2호선 건설 재검토를 통해 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계기로 앞으로는 10여년간 2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만큼은 (시청)수뇌부 몇 사람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광주시가 5년 동안 추진해왔던 유네스코의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광주는 미디어아트 도시로서의 명성 뿐만 아니라 광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을 선도해 문화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일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한 최종 가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미디어아트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프랑스 리옹(2008년)·앙기엥 레방(2013년), 일본 삿포로(2013년) 등 3곳만 가입돼 있다.

광주시는 먼저 가입한 이들 도시와 함께 미디어아트 분야 문화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도시간 공동 발전을 위한

창의 인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이번 승인에 따라 광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식 로고를 도시 홍보나 교류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세계속 예술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게 됐다.

시는 이달 중 광주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에는 창의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에는 미디어아트 창의재단과 미디어아트센터 설치, 관련 산업 육성 계획, 인력 양성 계획, 창의공간 조성 계획, 국제 교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세계적인 창의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아트 분야의 시민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캠프 봉사
▶ 화보 18면

연남초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안녕, 2014
한해 동안 수고한 당신에게
행복한 문화송년을 권합니다

나와 그대에게 전하는 편지
가족의 추억으로 엮은 감오년 포토 북
각별한 풍경과 사색으로 떠나는 송년여행

기획
**동학혁명 120주년 12월에
펼쳐본 역사의 그날들**
전봉준의 생생한 숨결을 만나다
시와 소설에 새겨진 동학의 의미

이달의 아티스트
스스로 터득한 '허튼 가락'과 신명 깨우는 자유의 음악
풍류 음악가, 임동창을 만나다

해외 문화기행
예술 감성 충전하는 '아트 도쿄'를 가다
걸작 즐비한 국립 서양미술관의 감동

진단
혁신요구 직면 광주비엔날레
"새로움을 수혈하라"

스포츠 이야기
맘으로 '연습생 신화' 쓴
2014프로야구 MVP
서건창의 치열한 시간들

연말가 불만한 해외 여행지
일본 오키나와
'일본 속 남국' 황홀한 자연

스타 데이트
'미생' 장그래로 폭발적 인기
아이돌 출신 배우 임시완
"세상의 모든 장그래를 응원합니다"

외로운 여행, 눈물의 항구
개항 117년, 다시 악동하다

아시아 스토리
로드 카자흐스탄
웅맹한 로맨티스트 카자흐인의 사랑과 의리